‘전북형 삼품제’로 인성교육 강화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독서 · 체육 · 문화예술 활동, 학교 진급 기준에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독서와 체육, 문화예술 활동을 학교 진급 기준에 반영하는 ‘전북형 삼품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인성교육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형 삼품제를 통해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실천 중심의 실제적 인성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다수가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학교 선택 기준에서도 초·중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국민 참여 설문에서도 강화가 필요한 교육 영역 1순위로 인성교육이 꼽혔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독서품·체육품·문예품’으로 구성된 전북형 삼품제를 학교급별 진급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독서품은 학생의 독서 습관 형성과 책 읽기 태도, 지속적인 독서 활동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세부 기준은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체육품은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신체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1인당 1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1인 1스포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 종목 확대와 전문지도자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문예품은 기존 1인 1악기 프로젝트를 확대해 악기 연주뿐 아니라 예술작품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매 학년 공연이나 전시회를 4회 이상 관람하도록 하고, 이를 진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K-컬처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해 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전북형 삼품제를 진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학생의 적극적인 교육과정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지덕체의 균형을 갖춘 민주시민을 자연스럽게 길러내는 교육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천형 인성교육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길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지역사회 나눔·상생 ‘선순환’

전북에듀페이 기부 참여기간 동안 학생들이 기부금 모아

전북교육청 사랑의장학회에 전달…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

전북에듀페이가 교육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 문화를 이끄는 선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한 전북에듀페이 기부 참여 기간 동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약 3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학습과 진로활동 등에 사용하고 남은 1,000원 미만의 소액 바우처를 전북에듀페이 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집계 결과 석 달 동안 도내 학생 761명이 참여해 적게는 3원, 많게는 990원까지 총 29만1,782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작은 정성이 모인 기부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장학회에 전달돼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기부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소액 바우처를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일상 속 기부 체험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북에듀페이 집중 신청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전북에듀페이를 통해 시작된 작은 기부가 큰 나눔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나의 우주, 책으로 펼쳐내다’ |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내일부터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이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책으로 펼쳐내는 나의 우주’를 주제로 도서관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연, 전시, 공연, 체험, 특별이벤트 등 5개 테마로 구성되며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과학동화 ‘24분 편의점’의 김희남 작가가 참여해 일상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독자들과 만난다.

또한 EBS 영어강사이자 ‘진짜 공부 VS. 가짜 공부’ 저자인 정승익 작가를 초청해 ‘변화의 중심에서 진짜 공부로 중심 잡기’를 주제로 학부모 교육 특강도 진행된다.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버블과 함께하는 판타지 버블쇼 공연을 비롯해 김지영 작가의 ‘내 마음 ㅅㅅㅎ’ 그림책 원화전, 어윤정 작가의 ‘우주로 카운트 다운’ 디지털 원화전, 팝업북 전시 등이 운영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페이스페인팅 체험과 우주 책갈피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출동! 도서관 우주 탐험대’ 행사도 눈길을 끈다.

이 프로그램은 4가지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이름이 각인된 메달을 증정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빅뱅데이, 지식의 은하수 나눔, 연체 블랙홀 탈출 등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현규 관장은 “이번 도서관주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책 속에서 자신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어린이부터 학부모까지 모두가 도서관이라는 우주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책으로 펼쳐내는 나의 우주’를 주제로 도서관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2027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10~11일 데이터 기반 대입 전략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급변하는 대입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진학지도 전략 강화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전문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과 업무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2027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방안을 논의하고, 팀별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수능전형 연구팀 △특별전형 분석팀 △연수 및 현장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부장 협의체 회장단으로 이뤄진 대외협력팀이 함께 참여해 전북 학생들의 대입 지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단순한 입시 정보 전달을 넘어 최근 입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팀 단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진학지도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 첫날에는 손선열 전북 진로진학센터 대입지원관이 ‘2027 대입 지원, 전북 데이터로 정리한다’를 주제로 최근 3년간 지원 및 합격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략적 진학지도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각 팀별로 2027학년도 전형별 자료 개발, 상담 운영 방안, 학생부종합전형과 특별전형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심층 협의를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팀별 협의 결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윤경아 충북대입지원단장이 단위 학교 진학지도 지원 사례를 소개하는 특강도 마련된다. /오상근 기자

유 · 보 이음교육 확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유·보 이음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영유아의 발달 연속성과 유치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올해 유·보 이음교육 운영 규모를 45개 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계기관 1개 팀을 1개원으로 간주해 운영한다.

유·보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돼 왔다.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공모사업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학폭 특별교육기관 3곳 추가 지정… 상담·회복 지원

가해학생 선도 2곳 · 성 관련 문제 다루는 맞춤형 기관 1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교육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기관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기관 2곳(전주·완주)과 성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맞춤형 기관 1곳(정읍)이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기존 19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됐다.

가해학생들은 보호자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학교 복귀와 올바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상담 및 교육 전문기관 23곳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전북교육감이 지정한 이들 기관은 총 45곳으로, 전북교육청과 법무부, 각 시·군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고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